



## 안팎 균형이뤄야 인류진화

### 세계종교지도자 공동선언 채택... 한마음선원서 회향

G20서울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과 공생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세계평화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시크교 일본신도 등 세계종교지도자 34명은 '지구촌 평화를 위한 G20 세계종교지도자포럼'을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연 데 이어 12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개최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한 G20 세계종교지도자 회의'가 11일 동국대 정각원, 12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한마음선원의 박재원 기자 wanihola@hanmail.net

이틀에 걸쳐 두 곳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경제계의 동참 방법,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발표 내용 3면, DMZ포럼 9면)

종교지도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다. 해원 스님이 낭독한 공동선언문에서 종교지도자들은 >다 포괄적인 정책으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평등한 혜택을 주는 것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한정된 지구 안에서 무한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계지도자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일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면서 "발전모델이란 지구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것

이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지구의 힘을 보호하고, 지구의 상호존성과 연합함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어 "우리는 물질과 영혼의 성장에 균형을 맞추고, 안과 밖이 고루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올바른 진화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틀날 회의 개최식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삶의 터전인 지구를 치우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기"라며 "이 자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물질·정신 양면에서 함께 고루 발전

해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은 모색하려는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선원은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누구에게나 마음은 있다. 이 마음이라는 불씨는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지구의 문제, 나아가서는 온 우주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며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뜻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주최한 세

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 디나 메리엄 의장(힌두교 명상수행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쟁·이해관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가 되려면 '과연 변역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종교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포럼은 조계종 포교원장 해종 스님의 개회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축사에 이어 발표·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ail.net

## "청규 쉬운 것부터 차근히 실천"

### 선원청규 편찬위원장 의정 스님... "제방 의견 수렴했다"

"옛 청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청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간화선 수행 풍토에 맞는 청규는 조계종(선원청규)뿐입니다."

선원청규편찬위원회 위원장 의정 스님(양평 상원사 선원장·사진)은 11월 10일 봉정법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스님은 "편찬 과정에서 중정 예하 및 원로스님, 수좌스님들의 의견을 구했다. 봉정법회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스님은 "보통마다 진행되는 포살법회에서 소규모 선원의 경우(선원청규) 독송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도 검토 중이다. 정착이 쉬운 부분부터 차근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스님은 <선원청규> 편찬사에서 "사부대중을 제도할 수 있는 수행자상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감내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목조선 수행을 중심으로 쓰인 중국 청규의 보급으로 한국불교에는 좌선 중심의 수행 풍토가 굳어져 있다"며 "좌선 위주로 변해버린 수행풍토를 동선(動禪)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특징인 간화선은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등 생활이 곧 수행인 역동적인

선수행이라 좌선 중심의 목조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의정 스님은 "(선원청규)가 실질적인 승가 생활규범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중현·종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편찬 과정에서 중단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정 스님은 중단과 중회 관계자가 참석한 선원청규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수좌회의 안과 총무원이 수시로 조정을 거쳤다.

스님은 "(선원청규)는 중현·종법의 연장선에서 수행자의 정신·사상을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율장 부분 기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계율·율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설우 스님(장원진불선원 선원장)은 "(선원청규)는 스님답게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출가자라면 반드시 생활규범으로 지키게끔 중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증오방지법 도입하자" 조계종, 성공회에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불교편협 영상 제작 건으로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가 사과 방탄한 자리에서 혐오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김 주교의 사과방탄은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불교편협 및 템플스테이 예산 저지 영상이 성공회 대구교회 조 모 신부가 제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자승 스님은 종교간 상호존중과 이웃종교 폄훼, 비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증오범죄방지법'을 들여 종교지도자들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주교는 이에 "좋은 생각이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교리 등의 차이로 서로 적대시 하는 부분이 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상을 제작한 조 모 신부는 성공회에서 11월 15일까지 공식사과문을 총무원에 제출하고 직접 대화에서 사과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조덕현 기자 noduc@naver.com

**2010 한마음인천 어린이미술경진대회**

노래하며 배우는 부처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음에 일깨워주는 생활 속의 마음공부 이야기들을 노랫말로 만들어 주세요

**【윤 모 야】** ·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쉽고 밝은 노랫말도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합니다. · 출품작은 1곡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작품을 보내주세요 됩니다.

**【윤 모 기 간 및 시 상】** · 접수 마감 : 2010년 11월 31일까지 · 수상작 발표 : 12월 19일 (본원 정기법회에서 시상)

**【장 내 혁 역】** · 대 상 (1명) :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2명) : 상금 50만원 · 우수상 (3명) : 상금 30만원 · 장려상 (10명) : 상금 10만원

\* 응모방법과 참고사항은 [www.hanmaum.org](http://www.hanmaum.org) 에서 확인

### 정찬주의 행복한 禪 다행 ②

#### 마경대

비구름이 비안개로 바뀌어 얼굴을 적신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우산을 펴지 않는다. 허공에서 떨어지는 한 점의 빗방울도 느끼는 자의 것이라 했다. 순례자는 무정(無情)의 비 한 방울도 인연으로 받아들이기에 법우(法雨)가 된다. 그렇다. 눈앞에 한기득 펼쳐진 진리도 깨달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일 터이다.

마경대(磨鏡臺) 가는 산길은 물보라 피어오르는 강의 발원지 같다. 비구름이 은빛의 물보라이듯 산길을 그윽하게 채우고 있다. 산길을 거슬러 오르는 순례자들의 걸음걸이는 펼치는 물고기처럼 활발하다. 형상에 올라 남악탑을 참배한 뒤부터 이미

### 눈앞의 진리도 깨달는 자의 것이리라

#### 세속의 잡사(雜事)는 잊어버렸다.

순례자들의 눈은 선정의 고요가 가득하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한전에서 외출한 아라한들이 형산의 산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눈의 고요와 입가의 미소는 옛비사 하지만 살아온 인생의 빛깔은 다 다르다. 순례자 일행 중 최고령자 여러지 보살은 젊은 시절 여배우로 활동했고, 정진 길에 들어서 삼십대 보현심 보살은 최연소자다. 스님, 시인, 교수, 학자, 사업가, 가정주부 등 여러 계층이 어우러져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같은 자기 개성이 분명한 순례자들이다. 마경대에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감격스런 목소리로 소리친다. "마경대가 여기 있습니다!" ▶19면에 계속

### 대각국사 909주기 천태종·조불련 합동다례

#### 천태종·조불련 합동다례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조불련)은 11월 10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 열반 제 909주기 합동 다례제를 봉행했다.

사회부장 경천 스님, 교무부 경필·설공 스님 등 남측 7명과 조불련 송춘일 스님,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 영통사 정각 스님 등 북측 5명이 참석한 다례제 자리에서는 2차 대북 수해지원으로 햅쌀 10톤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인기요금: 98원/kwh

## 아름다운 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 내열 ABS 내열특성: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